



남가주 교협, 작은교회 살리기
일환으로 장학금 지급 예정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 장학금 신청서 접수

“작은교회 목회자와 사모들 가운데 병원이기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교회 렌트비를 못내는 등 어려운 이들이 많습니다. 남가주 교협에서 그들을 위해 작은 힘을 드릴 수 있게 돼 큰 보람이 됩니다.” - 백지영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 이후 남가주 교협)는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작은교회 교역자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1일 식당을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다호갈비에서 진행했다. 남가주 교협은 21일 오전 다호갈비에서 5일식당 재정보고 및 장학금 신청서 접수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용덕 목사는 “남가주 교회 및 한인기업 등에서 협력해 5일 식당을 통해 1만 3천불이 마련됐다”며 “10월 2일(토) 오후3시 LA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 또한 지 목사는 “장학금 지급액은 당초 계획했던 500불씩 50개 교회 지원보다는 소규모로 장학금 지원을 받은 후 상세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세현 총무는 “남가주 전체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 뜻에서 어려운 작은교회를 섬기는 의미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교회가 연합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남가주 지역 건전한 교단의 교역자, 한 가정당 한 자녀에 한되며, 현재 6학년에서 대학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신청서는 남가주 교협 홈페이지(www.theck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제출 마감은 9월 29일(수)까지이며 교협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받는다. 주소: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A, CA 90006, 문의: 323-735-3000

(지재일 기자)



남가주 교협은 1일 식당을 통해 마련된 1만 3천불로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LA한인회관에서 작은교회 교역자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뉴욕과 워싱턴에 이어 22일 오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거리에서 십자가 대행진이 펼쳐졌다. 남가주중앙교회(담임 박종대 목사)에 모인 남가주 기독교계 목회자들과 평신도, 글로리아 마칭 밴드 등 100여명은 조슈아 크루세이드 훈련원장 피터 김 목사의 인도로 회개와 도시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후 행진 대열을 맞추어 ‘Believe in Jesus’, ‘Come to Jesus’를 소리 높여 외쳤다. 십자가 대행진은 할리우드 코닥극장 인근 하이랜드 애브뉴와 오렌지 드 라이브 사이에서, 7바퀴 여러 고성을 행진하듯 약 2시간 30

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행진 대열에 함께 했던 LA 홀리클럽 회장 옥세철 장로는 “미국 할리우드 거리를 기도하면서 행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회개와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십자가 대행진은 글로리아 마칭 밴드의 우렁찬 악기 연주와 함께 진행돼 길거리를 오가던 행인들의 시선을 한눈에 받았다. 할리우드 거리를 거닐던 그리스 출신의 관광객 Stamo씨는 마칭 밴드의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에서는 결코 이런 광경

을 볼 수 없다”며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냈다. 영국 출신의 기독교인 Guobss씨는 “십자가를 앞세워 전도하는 믿음의 용기가 아주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십자가 대행진은 미주성시화 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와 조슈아 크루세이드(대회장 송정명 목사)에서 주최했으며, 남가주한인목사회 등에서 후원했다. 조슈아 크루세이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할리우드가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거리 전도 및 십자가 대행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재일 기자)

LA 십자가 대행진 할리우드 코닥극장 인근서 열려

한빛예술단, 월서크리스천교회서 공연

LA한인축제재단 초청,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 특별출연

세계최초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단장 김양수)은 9월

30일(목) 오후 7시,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공연한다. LA한인축제재단(이사장 김진형)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에서 예술단은 타악양상블, 브라스 12중주, 성악 연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가 특별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213-393-6739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KIMNET
KOREAN INTER-MISSIONS NETWORK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IPPCAN 2010

제4회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10.18 (월)~21(목) 주제: **모슬렘과 북한을 기도로 품자! Praying for Muslims & N.K.!**
오후4시 저녁10시

등록: 1)일반 등록비 (\$80), 선교사 등록비 (\$60)
18일 오후 4시 등록, 식사 및 책자 제공
2)호텔은 개인 예약 Anaheim Park Hotel, Fullerton, CA
www.anaheimparkhotel.com 714-992-1700
3)등록: 인터넷 등록 www.gimnet.net/reg2010IPPCAN
(Paypal 결제),우편 등록, 직접 등록:은혜한인교회
contact: Joseph목사 @ 714-767-8234

주 강사: 김용의 선교사, 김종필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
주제 강사 목사: 고승희, 김남수, 박기호, 박희민, 방지일, 윤재관, 이삭, 임현수, 정민용, 최경욱, 최복규, 한기홍, 호성기
선택 강사 선교사: 김성간, 김경한, 김지성, 김철용, 김홍덕, 김형철, 김평안, 박상배, 양태철, 엄경섭, 윤재관, 조재선, 최재영, Ken An, Sam Kim, 백운영 (토론회 특별)

장소: GMI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446-6200)
주최: KIMNET(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주관: GMI (은혜한인교회).
공동주관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토마스선교교회, 베델한인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안디옥교회, 큰빛교회, 프라미스교회
공동주관단체: AMAC (남가주선교협의회), COME, Elijah Kim Ministry, GP USA, INTERCP (인터콕), SEED, Silkwave, SON, WMM (순회선교단)

25년 사역과 은혜 나누며 '미주온누리사역축제' 막 내리

OMC, 고든 맥도날드 "예배는 보냄으로 끝나"

25년간 온누리교회(담임 하운조 목사)의 사역과 은혜를 나누는 2010 미주 온누리 사역축제(On-nuri Ministry Celebration)가 9월 16~19일까지 알바인온누리교회에서 개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1개의 미주 온누리교회의 연합으로 진행된 사역축제는 매일 저녁 고든 맥도날드 목사의 저녁 집회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들의 주제강의, 선택강의, 특별게스트 프로그램 등으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벌였다.



미주온누리사역축제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 © 온누리교회 제공

박종길 목사(알바인온누리교회 담당)는 "OMC집회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별히 3일간 매일저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World Relief 총재, 미국 IVF 대표 역임)는 예배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

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첫째 날 이사가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 '회개', '용서', '음성', '순종', '보냄' 등의 키워드로 말씀을 전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예배는 항상 보냄을 끝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

다(사6:1~4)=고든 목사는 "웃어야 왕이 죽고 비로소 만군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며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온 땅에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든 목사는 우리 삶에서 각자가 신처럼 숭배하고 있는 '그것'이 죽어야 하

님을 볼 수 있다고 했다. ◇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사6:5)=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 제단 위의 솟(사6:6~7)=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얻는다고 했다. 고든 목사는 "이사야에게 있어 제단 위의 솟은 미래의 예수님의 십자가 될 것"이라며 "회개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용서"라고 말했다. ◆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사6:8)=회개 후 용서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고든 목사는 "모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기 원하시고 또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며 "어려운 마음에 그런 부담감은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나"며 "다만 듣지 못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나를 보내소서(사6:8)=고든 목사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회개 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들었다"며 "그 순간 순종한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

운 정원으로 보내셨다"며 "예배는 항상 보냄으로 끝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날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이 바로 예배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이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할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라고 생각한다"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책이 없을 때, 영혼 깊숙이 상처를 입고 실패자로 낙담될 때 모세처럼 각자 자신의 영혼을 위한 텐트가 필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학교가 바로 예배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고든 목사는 이사야처럼 성전도 없고, 모세와 같이 텐트도 없었지만 침실에서 하루에 세 번씩 예배했던 다니엘을 소개했다. 그는 "목숨이 위협당하고 위태롭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라며 "사자 굴속에서 그리고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났던 다니엘의 능력은 결국 예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박상미 기자>

마야문명의 발상지 과테말라를 그리스도께로!

10월 1일부터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 개최

성시화운동의 철학과 비전으로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를 10월 1일(금)~5일(화)까지 과테말라시에서 개최한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최하고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와 과테말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돈 목

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도시'에 전하는 성시화운동의 3전략을 전수해 과테말라 한인교회와 현지인교회들이 부흥하고 도시 변혁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6일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희민 목사는 "한국에서

고 김준곤 목사님에 의해 시작된 성시화운동이 이제 전세계에 확장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독교 인구가 약40%인 과테말라에서 성시화대회가 열린다"고 말했다. 또 이성우 목사는 "2008년 LA에서 개최된 다민족 성시화운동이 국제성시화대회의 시발점이 됐다"며 "2009년 인천 국제성시화 축전에서 결정된 국제성시화대회가 중남미 과테말라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이 과테말라 국제성시화대회에 대해 설명했다. ©지재일 기자

처음 개최돼 성시화운동의 국제적인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성시화대회 강사로는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전용태

장로, 소강석 목사, 김흥규 목사, 두상달 장로, 이성우 목사 등이다. 이번 대회에는 현지인과 해외 참가자를 합쳐 약5만여 명

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숙박비를 제외한 왕복티켓만 지불하면 된다. 문의) 213-384-5232 <지재일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이재일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계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마이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갈라한 실제 사진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미리컨도상가2층
일서+웨스턴코너

KAPC 남가주 · 로스앤젤레스노회 정기노회 성료

47회 남가주노회 민종기 목사 “노회에 필요한 것들 회의하고 기도해”

KAPC남가주노회(노회장 민종기 목사) 47회 정기노회가 9월 21일 서문장로교회(담임 명화영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대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사업부 보고와 유안건 및 청원권 토의, 회의록 채택 등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개역개정판 성경과 새찬송가 사용에 대한 총회 결정에 따라 남가주노회 소속교회들은 다음회기(2011년)부터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재민 목사가 로스앤젤레스노회로부터 남가주노회로 이명했으며, 남가주노회 조이플교회 류재욱 목사가

새로 가입했다. 남가주조이플교회는 KAPC총회 소속교회로서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된 류재욱 목사가 노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

특히 KAPC남가주노회는 국제개혁대학 학위 수여문제와 관련해 총회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노회는 국제개혁대학 불법학위 수여에 대한 총회위원의 해명과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APC 총회는 전 총회장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했지만 질의

서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노회 측은 “현재 학교에 파송한 이어나 평생 이사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기노회에는 국제개혁대학 신입총장 황은영 목사가 참석해 인사했으며 “동부에서 오랜기간 사역하다 서부지역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과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며 “총회의 신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함께 모색해가자”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15회 정기노회에 참석한 회원들. ©로스앤젤레스노회 제공

15회 로스앤젤레스노회 김성일 목사 “기도하는 노회로 모여 감사”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노회장 김성일 목사) 15회 정기노회가 지난 14일 동문교회(담임 고현권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한 이규섭 목사의 노회 회원 제명철회 요청의 건에 대해 허락했으며, 뉴욕동노회 이명철원의 건을 수락했다. 또한 김남 목사의 타 노회소속 교회 직분의 건에 관하여 본인의 해명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삭제된 교회주보를 노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국제개혁대학 교 신입총장인 황은영 목사

가 노회원들 앞에서 인사했으며 국제개혁대 신학대학원 이사과송 요청건에 대해 현 이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동대학원의 재정청원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재정부로 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노회에서는 미 군목으로 섬기고 있는 허재영 목사가 이라크사역과 군선교에 대해 슬라이드로 보고했으며, 정수웅 선교사가 북한선교와 중국선교에 대해 보고했다.

15회 정기노회는 38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강인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드려졌다. 예배에서는 고

현권 목사의 기도, 허재영 목사의 성경봉독, 김성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김성일 목사(본문:행 4장 12-31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보고 들은 증인으로서 세속적인 것들을 혼합하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고 전했다.

노회장 김성일 목사는 “이번 노회 중에는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노회로서 모이게 됨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상미 기자〉



KAPC남가주노회 47회 정기노회 © 박상미 기자

ORT 대학에서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 1. 기초영어중, 고급 8개월 코스, 컴퓨터 학비 전액 무료
- 2.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
- 3. 어카운팅 대학 졸업장, 자격증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대학 졸업장, 자격증
- 4. 약사 보조직 / 의사 보조직 / 컴퓨터 그래픽 & 데스크탑 퍼블리싱
- 5. 유학생 1-20 발행 (소셜번호, 워킹퍼미트 도와 드림)
- 6. 졸업후 직업 추천 해드림 (유테계 ORT대학)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버스표
전액 보조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하나님을 찬양 ‘은혜의빛성가단’

단원 모집해 성가단 활동 본격화

아름다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창단한 은혜의빛성가단(Light of Grace 단장 이승재 목사)이 단원을 강화하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은혜의빛성가단은 매주 월요일(첫째 주 월요일 제외) 저녁 7시~9시까지 세계목양교회(담임 김근희 목사)에서 연습하고 있다. 이승재 목사는 “지난 해 창단했다”며 “성가단의 취지대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재능 있는 단원

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례교인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가단 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은혜의빛성가단 지휘는 우상훈 목사가, 반주 김주영 집사가 하고 있다.

연습 장소: 927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06(세계목양교회)

문의: 626-961-6334 (은혜의 빛성가단 단장 이승재 목사)

〈박상미 기자〉



지난 9월 13일 세계목양교회에서 연습한 은혜의빛 성가단. ©지재일 기자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함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본사(한국어 직통) 1-888-848-8707 브레이크점 562-809-7027
세인트스점(한국어 문의) 1-877-767-8850 장의 & 장례보험 562-809-7027

[새벽강단 12] 주님세운교회 새벽예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망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욱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본문: 시편 5편 1~12절> 다윗의 기도입니다.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말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 말하지 못해도 마음속에 고민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는 자와 함께 하사 그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되고 다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좋은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우리로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작정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 성전 완공한 '주님세운교회' 특별새벽기도회 감사 드려

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새 성전을 완공하고 지난 달 입당예배를 드린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특별새벽기도회로 감사기도를 올렸다. 교회창립 2년 8개월여 만에 600여석의 규모의 본당을 성도들의 헌금과 기도로 완공한 주님세운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주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줄 믿습니다. 이 새벽은 하루 24시간 중 가장 귀한 시간인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년 7개월을 이곳저곳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서럽지 않았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려는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인도하신 손길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도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 삼일 아침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거두지 못하면 만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또한 그에 앞선 4년 전 원산에서 시작한 새벽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당신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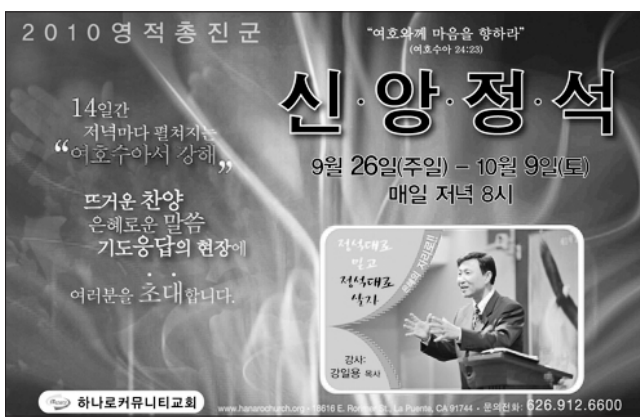
박성규 목사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

<박상미 기자>

신앙정석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14일간 '영적총진군' 앞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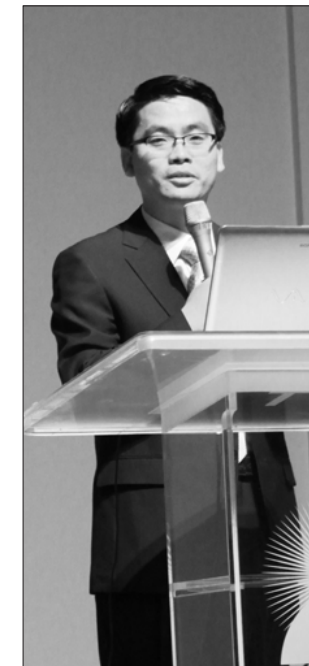
40년 광야의 긴 세월을 열흘로 앞당길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진군한다면 안 될 리 없다. 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더욱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자세이다. 대외적으로는 경제 불황과 각종 재난과 재해, 대내적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갈등, 개인적으로는 가정과 직장의 문제 등 삶의 시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지만 결국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더 위에 믿음으로 설 때 여러

고의 강한 성은 무너지고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를 맞볼 것이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강일용 목사)는 14일간 영적총진군에 돌입한다. 삶의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 위해서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모든 성도와 교역자들은 믿음의 행렬을 재점검하고 믿음으로 이 시련의 강을 넘을 것이다. '신앙정석', 정석대로 믿고 정석대로 살자는 표어 아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라(수24:23)' 말씀을 가지고 9월 26일(주)~10월 9

일(토)까지 매일 밤마다 모여 여호수아서 강해를 진행한다. 여호수아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이다. 강일용 목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약속의 땅 언저리를 맴돌았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정석대로 살면 우리는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영적총진군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로커뮤니티교회는 지난 2008년에 '정면돌파' 영적총진군을 지난 2009년에는 '일사각오' 영적총진군을 진행한 바 있다.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정면돌파'하여 소망의 날개를 펼쳐 더 높고 멀리 '일사각오'로 달려가기 위함이었다. 올해는 '신앙의 정석'으로 돌아가 약속의 땅 그곳을 믿음으로 밟을 예정이다. 2010 영적총진군을 앞둔 하나로커뮤니티교회는 온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 영적엔진을 강화하고 있다. <박상미 기자>

"열린모임으로 LA지역을 장악하라!"

2010 서부지역 열린모임 노하우 세미나 써니사이드교회서 열려



두날개선교센터본부장김성국 목사.

"전도해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소그룹 전도전략인 열린모임으로 LA를 복음화 합시다." 2010 미주지역 열린모임 노하우 세미나가 13일 뉴욕 지역을 시작으로 뉴저지, 워싱턴, 동남부 지역을 거쳐 서부지역에서도 개최됐다. 16일 오후 7시 써니사이드교회(담임 조인수 목사, 두날개네트워크 서부지역모임지역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청된 김성국 목사(두날개선교센터 본부장, 풍성한교회 전임사역 13년)는 대부분의 기독교인

원에 헌신할 것을 강조했다. 김성국 목사는 "열린모임의 모델은 성경(마 10:1, 눅10:1, 마 18:20)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한 지역을 거점으로 가져다처럼 그 지역을 장악해나가는 전도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 목사는 "열린모임은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모임, 관계를 통한 전도 습관화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기존의 교회에서 적용된 총동원전도주일을 통해 많은 영혼이 전도됐지만, 일시적인 전도를 넘어 성도들을 전도에 대해 체질화 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지적한 김 목사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던 것처럼 전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라"고 전했다. <지재일 기자>

들이 친구, 친척, 가족 등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소그룹 전도 전략인 열린모임을 통해 영혼구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순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티 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현대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영혼을 치유하는 *Healing Voice*
송정미와 함께하는
2010 밀알의밤
추복의도로

2010. 10.06 (Wed) 7:45pm (전야제)
ANC온누리교회 (담임목사 유진소)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818.834.7000 • www.onnurila.com

2010. 10.09 (Sat) 7p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213.749.4500 • www.gjcc.org

2010. 10.10 (Sun) 7pm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석)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949.854.4010 • www.bkc.org

특별출연
장성규 시각장애 클라리넷 연주자
이지선 <지선아 사랑애>의 주인공

Song Jung Mee
Ticket: \$10.00
티켓구입 및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714-522-4599
www.MilalMission.com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밀알선교단에서는 **2011년도 장애인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격: 장학생 -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장학금액: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신청마감: 2010년 11월 26일(금)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714-522-4599)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2011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2010년에는 93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총 \$171,600.00을 지원하였습니다.

티켓 예매처: 중앙티켓센터 213-368-2522 / 알라딘서점(울림픽업 213-739-8107, 로텍오컬러리아점 213-380-8888, 플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 정음사(코리아타운플라자 내) 213-387-6767
두란노서점 213-382-5400 / joy 기독교서점 323-766-8793 / 도르가기독교복합점 714-636-7430 / 아가페기독교복합점 213-385-3737 / 성지서적 213-388-2839 / 복음사 562-865-4949



100대 대형교회 2위에 오른 조지아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위)와 100대 급성장교회 1위에 오른 12스톤교회.

미국 올해 100대 대형, 급성장 교회 발표

최근 미국 기독교 격월간지 '아웃리치'에 발표된 미국 '100대 대형교회'와 '100대 급성장 교회' 리스트에서 조지아에 위치한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와 12스톤교회가 각각 대형교회 2위와 급성장 1위를 차지해 주목된다. 100대 교회를 지역별로 보면 남동부 지역에 가장 많은 33개가 밀집되어 있어 바이블벨트로서의 명성을 유지했다.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는 현재 앤디 스탠리 목사가 이끌고 있으며, 매주 2만4천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대형교회 2위에 오른 노스포인트교회는 성장 순위에서도 68위를 차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100대 대형교회 1위는 텍사스 레이크우드교회(조엘 오스틴 목사, 교인 수 43,500명)가 올라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로 조지아 노스포인트커뮤니티교회(앤디 스탠리 목사, 교인 수 24,325명), 3위 텍사스 세컨드침례교회(에드 영 목사, 교인 수 24,041명), 4위 일리노이 윌로우 크릭커뮤니티교회(빌 하이벨스 목사, 교인 수 24,000명), 5위 켄터키 사우스이

스트크리스천교회(데이브 스톤 목사, 교인 수 19,230명)가 각각 순위에서 올랐다.

100대 급성장 교회로는 1위 조지아 12스톤교회(케빈 마이어스 목사), 2위 텍사스 익스페리언스라이프교회(크리스 갈라노스 목사), 3위 캘리포니아 더락교회&월드아웃리치센터(짐 코브레 목사), 4위 오를라호마 피플스교회(허버트 쿠퍼 목사), 5위 미조리 세인트루이스페이스교회(데이빗 크랭크 목사)가 차지했다.

급성장교회 1위에 오른 12스톤교회는 지난 1년 사이 2,226명의 새 교인이 등록하면서 30%의 성장세를 경험했다. 이 교회는 지난해 100대 급성장 교회 16위에 오른 바 있으며 올해 위 순위는 지난 2월과 3월 주일 평균 출석 교인 수를 조사한 것으로 대형교회는 5,500명 이상, 급성장 교회는 1,000명 이상 교회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한인교회로는 유일하게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올랐으나 출석 교인 수가 다소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다.

(권나라 기자)

▶ 정치권 하나돼 극단주의 이슬람 활동 제재 나서

9.11 테러 연루된 獨 모스크 폐쇄 처분

극단주의 이슬람 활동으로 수년간 주목받고 있던 함부르크의 모스크가 폐쇄됐다.

함부르크 주 내무부는 모스크를 폐쇄시키고 관련 협회 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해당 모스크 및 협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조직의 지도자급 회원들의 집과 모임 장소를 수색했다.

폐쇄된 모스크는 2001년 9.11 테러리스트들과 이들의 조력자가 모였던 장소로 알려졌다. 범죄 계획에 사원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해당 모스크는 2008년 Al-Quds에서 Masjid Taiba로 개명했으며 1년 후인 2009년 11명의 그룹이 파키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방향으로 출국, 독일 정보기관은 이들의 목적을 극단

주의 이슬람 조직 군사훈련으로 추정해 왔다.

한편 함부르크 시의 대표 이슬람 단체 Schura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해당 모스크 및 협회를 멀리해 왔다.

이 일에 대해 함부르크 시의회 의원이며 차기 시장인 알하우스(기민당)는 해당 모스크에서 청년들이 광신도로 육성되는 한편, 협회는 지하드 단체의 공격적이고 반민주적인 종교 사상을 전하는 '성전'을 위한 집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모스크 폐쇄 및 협회 제재에 대해 여당인 기민당과 녹색당 뿐 아니라 야당인 사민당과 좌파당에서까지 광범위한 지지가 일고 있다.

기민당의 슈네만 니더작센 내 무장관은 해당 모스크에 대한 조

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모스크가 극단주의자들의 집회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사민당의 드레셀 사민당 내무분야 전문위원은 해당 모스크와 협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의한 관용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주 녹색당의 케르스 탄 의원은 이 모스크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조사를 고려해 볼 때 폐쇄 조치는 당연한 결과이지 다른 온건한 무슬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좌파당의 슈나이더 연방의원 의원은 "아무도 청년들을 광신도로 육성하는 지하조직의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며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단체에 가입하는 근본적 원인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독일 현지 언론들은 이번 모스크 폐쇄 및 협회 제재 조치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며 독일의 이로운 무슬림들에게도 이로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2001년 9.11 테러 건과 1년 전인 2009년 테러리스트 육성 장소로 이동 간까지 포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법치국가로서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스크 폐쇄와 관련 협회 제재가 이슬람의 증오 설교나 다음 테러 계획을 막지도 못할 뿐 아니라, 테러 집단에 대한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이점이 없어졌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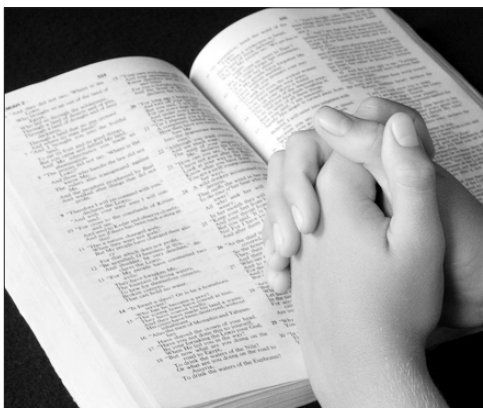
(남윤식 기자)

하나님의 말씀, 2,508개 언어로 번역됐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는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소한 단편(쪽북음)이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를 합하여 총 2,508개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213개, 그리고 단편만 번역된 언어의 수는 총 836개에 이른다. 단 한 편의 성경(쪽북음)을 번역하는 데 여러 달이 소요되

경을 번역하는 데는 평균 이상이 걸린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전 세계 성경번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성경번역



2008년 말보다 29개 증가... 앞으로도 4천개 이상 남아

이는 2008년 말보다 29개의 언어가 늘어난 숫자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6,500여개로 집계되며 앞으로 4,0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더 번역되어야 한다.

2009년 성서번역현황을 살펴보면, 성경전서는 8개의 언어로 완역되어 총 459개이며, 신약전

서 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213개, 그리고 단편만 번역된 언어의 수는 총 836개에 이른다. 단 한 편의 성경(쪽북음)을 번역하는 데 여러 달이 소요되며, 성경전서 한 권을 번역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12년이 걸린다. 유럽 국가와 같은 나라의 성경번역 작업 시

같은 나라의 성경번역 작업 시 같은 이보다 덜 소요되지만,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의 언어로 성

금 10k, 14k, 18k, 24k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금매지 213-908-0854
충장한영 3960 Wilshire Blvd. #406 (월사+월턴)

작업이 가장 절실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650개의 번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1년에 약 35개의 번역 프로젝트를 마쳤다.

성서공회는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시행한다. 첫째는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의 성경이 원어문에 의해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

요한 경우 외부 번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각국의 성서공회는 그 나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라는 것이다.

성서공회측은 "그리스도의 몸된 전 세계의 교회와의 결속을 통해 성서공회는 모든 교회를 섬긴다"며 "모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개신교, 가톨릭, 정교회 등 모든 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번역을 시행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성서공회들의 연합체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의장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제8회 세계대회(World Assembly)'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국 벅스힐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8번째로 열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생명"(God's Word, Life for All, 요 10:10)을 표어로 전 세계 150여개국의 성서공회 대표들 440여명(국내 내빈포함 48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성경을 효과적으로 번역하고 의미 있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세계 성서사업의 목표와 협력을 확인한다.

(이대용 기자)

RADIO SEOUL '홈 스위트 홈'의 진행자!, 사랑을 실천하는,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노형건의 '한 생명 살리기 주일예배대행진'

오페라 캘리포니아의 그 열정으로!
홈 스위트 홈의 사랑과 실천으로!
지구촌의 죽어가는 아동을 위해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랑과 나눔, 감동의 찬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Celebrating 60 years

한생명 살리기 주일 예배 순회 일정

- 9월 19일(주일) 오후 12:30 - 새소망교회 · 2017 West Olympic Blvd, L.A, CA 90006 · (213)422-6966
- 10월 3일(주일) 오전 10:30 - 리빙워드 연합교회 · 1494 California Cir, Milpitas CA 95035 · (408)934-3600
- 10월 10일(주일) 오전 10:30 - 발렌시아 새누리 교회 · 25133 Ave, Tibbitts #1 San Clarita, CA 91355 · (661)964-8205
- 11월 21일(주일) 오전 1:30 -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 72700 Fred Waring Dr, Palm Desrt, CA 92260 · (760)636-2675
- 11월 28일(주일) 오전 10:30 - 기쁨의 교회 · 3912 Wilshire Blvd, LA, CA 90010 · (213)351-9975
- 12월 12일(주일) 오전 11:00 - 천성 장로교회 · 6910 Potrero Ave, El Cerrito, CA 94530 · (510) 215-9800
- 12월 12일(주일) 오후 1:00 - 시온 장로교회 · 980 Stannage Ave Albany CA 94706 · (510) 912-1955
- 2011년 7월 17,18(토,주일) 오후 7:30 - 오페라 CA 선교오페라단 · 1046 S. Victoria Ave, LA, CA 90019 · (323)936-2567

노형건
현 월드비전 음악홍보대사
현 사랑여성합창단 지휘자
현 AM1650 라디오서울 부국장 및 홈 스위트 홈 진행자
현 Opera California 선교오페라단 단장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M.M)
(미국 버지니아 주 Voice Competition First place)
(미국 버지니아 주 Everett college 종교음악과 교수 역임)
(국립 합창단, 김자경 오페라단 단원 역임)
(워싱턴 오페라 단원 역임)
(미주예총 1994년 올해의 예술인 상 수상)
(2005 World Cultural & Sports Foundation Multi-Cultural & Musical Award 수상)

초청 문의전화
323-574-2747

www.rohyungkun.net

월드비전은 196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 국에서 긴급구호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구촌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 “가난했지만 나라 위해 먼저 기도” ... 김윤옥 여사도 거들어

이명박 대통령, <아침마당>서 “어머니의 기도” 간증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21일 추석을 맞아 KBS 1TV 생방송 <아침마당>에 출연, ‘어머니의 기도’와 관련된 짧은 간증을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저는 훌륭한 어머니를 만났다”며 “초등학교 출신이셨지만 대단히 훌륭하셨고,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라는 것을 늘 강조하셨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머님은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셨다”며 “저처럼 어머니도 아침 4시면 일어나셨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셔서 아이들을 다 깨워서 기도하시고 나서 새벽에 장사하러 나가시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맨 나중에 건강하게 자라게 해 달라는 기도밖에 하지 않았다”며 “저는 사실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고, 그때는 잠도 오고 피곤하고 배고파서 기도가 잘 들어 오지도 않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때는 ‘우리도 못 먹는데 무슨 나라와 사회를 기도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가난했던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기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크리스천투데이 DB

게 하셨는지 알게 됐다”며 “저는 가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어머니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덕분 그 말씀들이 권위가 있어 빛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윤옥 여사도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직접 된 적은 없지만 첫 아기를 낳고 미국에서 시고모님이 오셨을 때 어머니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그때 어머니는 ‘우리 명박이는 나중에 사장이 될텐데 배가 안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을 가지고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이 당시 최연소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며 “저도 어머니의 굉장한 그런 모습을 존경하고 이어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 큰 기대치를 두고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 가정에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든 어머니처럼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머니에게 새 옷을 하나 사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킬 기회 없이 너무 일찍 가서

무척 아쉽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 눈물을 글썽이던 대통령은 “어머니 얘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며 “저는 그래서 가난하든 어렵든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은 화목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재산을 다 내놓게 된 것도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이렇게 돈을 벌지 몰라서 그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약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지켰다”고 흐느꼈다.

(이대용 기자)

개혁총연 제95회 총회, 총회장에 엄바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이 13일 서울 중흥교회(담임 엄신형 목사)에서 제95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엄바울 목사를 추대했다.

‘하나되어 섬기며, 섬기며 하나되는 총회(마 5:16)’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신·구임원 교체와 규칙부 헌의안 등이 주요 이슈였다.

각부보고와 함께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으며, 관례대로 회계에 대한 보고는 차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총회장에 취임한 엄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이루도록, 총회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말씀에 따라 하나되고 연합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

여 모든 업무들을 임원들과 함께하겠다”면서 “소명을 맡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임기 동안 부흥하는 총회를 이루겠다”고 했다.

총 1487명의 총대 가운데 748명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규칙부 헌의를 통해 총무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총회 임원은 3년 전 방식으로 돌아가 각 대회에서 선출하여 올라온 명단을 총회에서 인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새 임원으로는 총회장 엄바울 목사, 부총회장 최원석·소에스더·이창순·정바울 목사, 서기 장광수 목사, 부서기 현재승 목사, 회의록서기 이은재 목사, 부회의록서기 강영길 목사, 회계 김동근 장로, 부회계 김진성 목사, 감사 김행천·최요섭·김영도 목사, 총무 최정봉 목사 등이 선임됐고, 남은 안건은 모두 임원에게 위임됐다.

(류재광 기자)

“밥 한 공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

모두가 고향으로 떠나는 이 때,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깊은 사랑을 전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울역 인근 ‘사랑의등대’에서 노숙인들을 비롯한 불우이웃에게 무료급식

한기총 주최 노숙인들 대상 ‘새희망 대축제’

과 명절 선물 등을 증정하는 ‘새희망 대축제’를 개최했다. 한기총 사회위원회(위원장 손인옥 목사)가 주최하고 기독교간급구호센터(사장의등대, 본부장 김범곤 목사)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약 300여명의 불우이웃이 참석해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인사말을 전한 김운태 한기

총 총무는 노숙인들에게 “수고와 역경,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전했다. 이어 설교를 전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남에

게 베풀 줄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봉사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대표회장은 “밥 한 공기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손이 있거든 악수라도 하고, 보듬어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

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진재수 총무과장이 참석해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범곤 본부장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자”고 봉사자들에게 당부했다. 이후 이광선 대표회장과 김운태 총무를 비롯해 30여명의 신일교회

성도들은 직접 음식을 식판에 담아 노숙인들에게 간네주며 사랑의 실천했다. 자진하여 봉사활동에 나선 신일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밝은 얼굴로 섬김을 드러내며 감동을 선사했다. 아울러 행사 전후로 간절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던 노숙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재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깊이 전달되는



서울역 인근 '사랑의등대'에서 열린 '새희망 대축제' 행사에서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이 직접 배식을 담당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듯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5일간 계속되며 22일부터는 백석대학교(총

장 장종현 목사), 중앙성경교회(담임 한기체 목사) 등이 연이어 봉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경호 기자)



본교는 이민교회와 세계선교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데 헌신할 전임교수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전임교수 모집 공고

지원 자격

-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목사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목사
-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목사는 아니지만 채용 후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한 자
- 구약학, 조직신학 분야 Ph.D. 소지자 중 1명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구비 서류

- 이력서 ※ 학력, 경력(교회, 학교, 사회 활동 사항), 학문적 관심 분야, 출판물(academic publication), 참고인(reference) 3인의 인적사항 등이 필히 기재되어야 함.
- Ph.D. 학위 사본
- 학위논문 표지, 목차 및 요약(abstract)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통
- 신대원(M.Div.)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1통
- 교수 추천서와 담임목사 추천서 각 1통 ■ 신앙고백서(1~2 페이지) ■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접수 마감일

- 2010년 9월 30일(목)
- 기타 문의 : 이상명 교무처장 : Tel. (562) 926-1023, Ext. 302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www.mijujangsin.org / Tel. (562) 926-1023, Ext. 302

서울시청 앞 광장서 '라이즈업 코리아 919 대회'

“회개와 감사는 어디가고 욕망에 사로잡혀...”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이동현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10 라이즈업 코리아 919 서울대회가 주일인 19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수만여명의 청소년들은 구본홍 사장(CTS)의 개회선언 이후 오락가락하는 빗속에서도 3시간 이상 하나님을 열렬히 부르짖고 찬양하며 뜨거운 '스탠딩 무대'를 연출했다.

메시지를 전한 이동현 목사는 청소년들의 강력한 회개를 촉구했다. 지난 6월 919 대회 킥오프 행사에서 한국교회를 '시스템은 좋는데 에너지가 약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밀바다 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한국교회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회개와 감사”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의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우리의 죄악들을 용납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며 “하지만 우리는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8-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지은 찬송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부흥의 시대에는 간절과 처절함이 있었다”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떠나가지 않도록 통회하고 회개해야 하고, 이것

들이 회복될 때 다음세대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욕망의 영'이라며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않은 부모들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성적 몇 점 올리려 교회를 빠지는 짓거리를 용납하고 있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이 정도의 헌신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신가”라고 개탄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메시지를 들으며 통곡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회개 기도가 이어졌다. 그리고 모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탐욕 청소년들을 위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핍박당하는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다. 생방송중임에도 30여분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고 나서야 '환희의 찬양'이 다시 흘러나왔다.

이어 지난 1월 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펼쳐진 라이즈업 필리핀 현지 관계자가 나와 '기적의 현장'을 보고했고, 마지막 순서로 아광봉을 커 라이즈업 특유의 '대형 십자가'를 만들어냈다.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는 말로 격려하고 축도했다.

(이대웅 기자)

30주년 맞는 합신총회, 총회장에 장상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95회 정기총회가 14~16일 경기도 평택 시 소재 고덕중앙교회당(임석영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는 171표 중 161표로 압도적인 표를 얻은 장상래 목사(동서울노회 은평교회)가 선출됐다. 장상래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95회 총

회는 교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된다”며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총회의 나아갈 길과 비전을 제시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상래 총회장은 특히 “WCC 부신총회 유치로 시작된 교계의 갈등

과 신학적 논쟁이 고조되는 때에, 우리의 모토였던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결집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연합사역에 적극 참여, 본 교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한편,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합신총회를 허락하신 뜻을 새기고 책임 있는 교단으로 세워 나가는 데 앞장

설 것”을 강조했다. 장 총회장은 끝으로 “어려운 시대야말로 영적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라며 “주일 국가고시 실시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 등 주일성수가 우리 사회에 제도화되도록 주일 성수 운동을 계속하여 펼쳐나가기 바란다”고 전국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진 임원 투표에서 목사부총회장에는 3차 투표까지 접전을 벌인 가운데 175표 중 89표를 얻은 권태진 목사(경기중노회 군포제일교회)가 선출됐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정문영 장로(서서울노회 큰빛교회)가 선출됐다. 또 서기에는 전현 목사(북서울노회 화평교회)가, 부서기에는 박성호 목사(부산노회 푸른초장교회), 회록서기에는 허성철 목사(인천노회 서문교회), 부회록서기에는 김태준 목사(경기서노회 중동교회), 회계에는 강원진 장로(남서울노회 대림교회), 부회계에는 김원철 장로(중서울노회 벨엘교회)가 선출됐다.

(류재광 기자)

“과거와 현재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길 제시”



예장 합신 제95회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재광 기자

“세계화는 '기회', 성서공회 사역에 활용 논의할 것”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제8회 세계대회(World Assembly)'가 9월 20~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장에서 개최 중인 가운데, 주최 측인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회의 의의와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UBS는 전 세계 성서공회들의 연합체로, 147개국 가입되어 있다. 각

국에서 세계대회 대표 440여명이 모인 이번 대회는 미국 벅스힐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8번째로 열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생명”(God's Word, Life for All, 요 10:10)을 표어로, 성경을 효과적으로 번역하고 의미 있게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세계 성서사업의 목표와 협력을 확인한다.

UBS 밀러 밀로이(Miller Milloy) 총무는 이번 총회의 가장 큰 화두로 '세계화'를 꼽았다. 밀로이 총무는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커뮤

케이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성서공회들 역시 이 같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세계적 문제들에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로이 총무는 대표적 사례로 동남아 쓰나미, 아이티 대지진, 아프리카 에이즈 문제 등을 들었다. 먼 나라에서 재난이 일어났지만 세계 각 국가와 성서공회들이 신속하고

레의 개정을 통해 시대 언어에 맞는 성경을 제작했으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똑같은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기도 하다”며 “이번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는 세계화라는 이 기회를 우리 사역에 어떻게 활용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밀로이 총무는 지난 20년 간 전 세계에 870억 권의 성경이 보급됐다는 설명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으며,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이 이처럼 많은 대형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성서공회 대표들이 전화에서 채택된 사안들을 검토, 향후 6년간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채택한다.

(류재광 기자)

한국서 세계대회 갖는 성서공회聯 기자회견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 밀로이 총무는 세계화 시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 언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들었다. 이는 결국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밀로이 총무는 이제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성서공회는 전 세계 147개국 성서공회 중 거의 모두에게 성서 제작과 보급을 돕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성경 제작 기술이 훌륭하고, 세 차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대회에 참석한 UBS 밀러 밀로이 총무와 (신의미래)의 저자 필립 켈킨스(좌측부터 두번째와 세번째),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총무들. ©류재광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재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최근 인물 사진 1장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을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NJ교협 회장 유병우 목사, 부회장 유재도 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회장에 유병우 목사(뉴저지프라이미스교회 담임)가 당선됐다. 부회장은 유재도 목사(땅끝교회 담임), 이덕선 장로가, 감사에는 황금환 장로, 양부환 목사가 당선됐다.

9월 20일 오후 6시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제24회 정기총회가 시작됐다. 총회에는 26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내년 총회부터는 신규 임원 이취임식 순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 설립 25주년을 앞두고 '역사 편찬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역사를 정리하

는 편찬 위원회는 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했다.

유병우 목사는 "지난 4년여간 교협 활동을 하면서 교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며 "열심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형교회 인적 자원을 1백명 미만의 교회에 1년 단위로 지원하고 △교협 연합 단기 선교를 펼치겠다는 사업 계획을 밝혔다.

양춘길 목사는 "수고해주신 임원들, 그리고 협력해주신 교회들에 감사하다"며 지난 회기동안 감사, 회개, 각오하게 된 바를 전했다. 그는 "앞서 그동안 교협을 섬겨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한

교회가 교협을 돕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번에 알았기에 그동안 협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더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총회에서는 새로 가입한 열방선교교회(순복음, 류수민 목사), 새방주교회(나사렛, 박인갑 목사), 구원장로교회(UPCA, 장치조 목사), 한민교회(UPCA, 김연호 목사), 구세군뉴저지교회(김종원 목사), 시나브로교회(박근재 목사), 베들레헴장로교회(이요한 목사)가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주이 기자〉



전임 회장 양춘길 목사(좌)와 신임 회장 유병우 목사(우)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전임 지회장 송병기 목사, 국제사랑재단 본부 상임이사 김기택 장로, 신임 지회장 이병홍 목사.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회장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회장 이·취임식 및 감사예배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홍 목사)에서 진행됐다.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이

신임 지회장 이병홍 목사, "사랑의 정신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

병홍 목사는 그간 부회장으로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를 섬겨왔다.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1대 회장을 역임한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는 임기 4년 중 1

년 6개월여 지회장 자리를 맡아 왔다. 취임사를 전한 이병홍 목사는 "지회장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일을 잘하려 했는데 송 회장님이 넘겨주신 책임이 중차대하

다"며 "재단을 설립하신 김기수 목사님의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구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의 씨를 심는 일에 협력하며 지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병홍 목사는 설립자 김기수 목사를 소개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은 대스승 목사"로 "베푸는 삶,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줬다"며 "저 또한 평생 이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고 전했다.

취임사를 전한 송병기 목사는 "1년 반을 이끌며 도와준 이 사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에 감사하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을 했다. 연길 빵공장 오픈예배에 참여하며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캄보디아, 연해주, 아이티에 뜨거운 정성과 사랑을 전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취임하는 지회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을 전한 신현택 목사(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는 "사랑이란 립서비스

(Lip service)가 아니다. 행동과 마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며 "국제사랑 재단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어려운 이들을 힘써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덕 목사는 축사를 통해 "전임 회장은 처음 뉴욕에 설립된 국제사랑재단을 개척자의 정신으로 다리를 놓았다고 하면 신임 회장은 그 정신을 잘 계승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은 한국 대한예수교성결교 총회장 노희석 목사가 예배의 설교를 전했으며 한국 국제사랑재단 본부에서 상임이사 김기택 장로가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사랑재단 총재 김삼환 목사가 보내온 공로패가 직전 회장과 신임 회장에게 전달됐다.

한편 작년 5월 22일 설립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는 중국 연길 빵 공장 건립에 3,000불 지원(2009년 7월),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1,200불 지원(2009년 7월), 아이티 지진 참사 현장 방문(2010년 5월), 국제사랑재단 동북아시아 블라디보스톡 지회에 1,000불(2010년 7월), 아이티선교회(대표 장기수 목사)에 아이티 선교 기금 1차, 2차, 3차분 23,000여 불 전달(2010년 8월)한 바 있다.

〈오상아 기자〉

탈북자로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탈북자 조진혜씨, 한인사회에 도움 요청

지난 2008년 8월 워싱턴 DC 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던 탈북자 조진혜씨. 조씨는 10살 때 중국으로 탈북했다 가족을 잃었지만 윤요한 목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2008년 3월 시애틀로 망명했으며, 지난해 워싱턴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 지역에 온지도 벌써 1년이다 되어가고 매일 12시간씩 일을 했지만 가까스로 현상유지만 될 뿐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북한과 중국을 떠돌며 할머니와 아버지, 남동생 둘을 배고픔으로 잃고 네 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었지만 조씨는 다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모녀가 거처할 곳을 찾다 마침 비엔나에 적당한 방을 구했지만 이사간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은 샤워는 밤에는 못한다, 전등불은 이것만 쓰라는 등 갖은 간섭과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만일 말을 안들으면 너희 가족이 다시 추방되도록 하겠다. 추방되면 너희는 또 북송이다"라

며 잔인한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는 조씨가 집을 비운 사이에 건물주의 간섭을 고스란히 받아야했던 사람은 영어가 서툰 어머니였다.

조씨 가족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주인은 결국 조씨 가족을 나가라고 명령했고 이들은 집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너무 화가 나 경찰을 불렀지만 법적으로 건물주를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건물주가 조씨 가족의 얼마 안되는 짐을 음식과 함께 마구 섞어 싸는 바람에 옷이며 신발이 모두 엉망이 된 것이었다.

조씨는 "미국 법을 모르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줄 몰랐다"며 "어떻게든 그 사랑을 고소하고 싶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조씨 가족은 좁은 차 안에서 잠을 자야할 처지다. 조씨는 "탈북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데 도움을 다시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져 참담하다"며 "그러나 앞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겠다"고 말했다.

도움 전화 : 425-329-9393

〈조요한 기자〉

내 부모 처럼 마음을 드리는 봉사자 모집

장애우 사랑교회에서 양로병원 봉사를 10년동안 하다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차마에서 벗어나고, 매일 찬송가를 암송하시므로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대회를 빛내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과 봉사자 분들(15명)을 초청하오니, 연말연시의 바쁜 시간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그랜드 팍 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7일 오전 9시30분~11시
- 2312 West 8th, Street, LA., CA 90057-3955
- 중앙양로병원 친교실 : 2010년12월18일 오전10시~11시30분
-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대회는 찬송가 204장을 심사곡으로 하며 상금도 주어집니다.
1등 1명에게는 상금 100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3등 3명에게 각각 30불, 그리고 찬송가 모두를
다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연락처 : 213-705-0404 / Fax: 213-351-0955
메일 : P.O.Box742017 Los Angeles, CA 90004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9월 27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현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욱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경공부 (화)오후7:30,
 (수) 오전10:30
 2부예배 오전 11:00 (수) 오전10:30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7: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우터슨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 오전 6:00
 2부EM예배 오전 9:45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예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쉽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의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창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장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준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615 shatto place, LA, CA90005
 T.(213)249-9191 / F.(213)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중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요일)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정오 12:30(분)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화-토)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가나안교회 두 교회로 분립, 재산도 분할돼

4년 이상 진통을 앓아 오던 가나안교회 사태는 상회인 PCUSA 링크트레이 회의의 행정전권위원회가 양 교회 모두의 손을 들어 주며 재산을 분할하고 종결됐다. 여기서 양 교회는 이용삼 목사 측으로 불리던 가나안교회 프라미스 측과 가사모(가나안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로 불리던 가나안교회 커버넌트 측이다.

을 분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용삼 목사 측은 잠정적으로 프라미스 가나안교회로 불리며, 가사모 측은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로 불린다. 이름 뿐 아니라 두 교회는 노회 소속도 달라졌다. 과거 소속 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로부터 목사 파직을 당했다가 노회 상회인 대회로부터 복권된

됐다. 이용삼 목사 측은 현재 본당(1424-1426 Greenwood Rd., Glenview)을 소유하게 됐고 가사모 측은 비전센터(1240-1254 Greenwood Rd., Glenview)와 위스콘신의 가나안기도원(15711 38th St., Kenosha)을 소유하게 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전권위가 더 자세한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며 각자 고용했던 변호사와 법적 행

본당과 비전센터로 분할, 노회 소속도 변경

행정전권위 측은 지난 9월 8일 “분구 당사자들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화목을 이루어 낼 수 없었고 양자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과 판단 위에 행정전권위는 양 교회 대표를 만나 두 교회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분립되며 재산 역시 분할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용삼 목사 측 교회는 한인노회인 중서부한미노회에 잔류하지 않고 미국노회인 시카고 노회로 이동한다. 반대로 가사모 측은 계속 중서부한미노회에 속한 교회로 남는다. 이용삼 목사는 프라미스 가나안교회에 계속 시무할 수 있게 됐으며 커버넌트 가나안교회는 인터립 목사를 뽑아 1년간 준비하며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보통 교회 분쟁이 일 경우, 보다 정통성과 합법성을 가진 쪽의 손을 들어 주고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귀속시켜 왔던 PCUSA가 두 교회 모두의 손을 들고 재산

“어느 쪽이 교단 측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와 함께 논쟁이 됐던 “재산 문제”는 양자가 나눠 갖게

동에 대한 재정 부담은 각자 지기로 했다.

갈등을 겪던 양측이 사실상 분립됐으나 두 교회가 E. Lake Ave. 하나를 사이에 두고 0.2 마일도 채 안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던 점에서 양측 중 한쪽이 교회를 이전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현 재산을 처분하고 교회를 이전하거나 교회 이름을 변경하려면 어느 쪽이라도 각자 속한 노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김준형 기자)

테너 이용훈, 기아대책과 함께 노래하다

자메이카 어린이 돕기 위한 자선공연

2010년 9월, 10월 시카고 리릭 오페라 '카르멘'에서 주연을 맡기 위해 시카고를 방문한 테너 이용훈 집사가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와 함께 자메이카 어린이를 돕기 위한 자선공연을 개최했다.

서울대 음대, 뉴욕 매네스 음대를 수석 입학해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한 이력 외에 푸치니 국제콩쿨, 로렌 자카리 국제콩쿨 등 다수의 국제대회에서 우승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오페라 가수로 떠오르고 있는 그가 무료로 자선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시카고 한인들도 큰 기대를 가졌다. 특히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 자비량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해외로 찬양 선교를 다니고 있으며 스스로를 찬양 선교사로 자처한

다는 그의 공연에 기독교인들의 기대는 더 컸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9월 18일 저녁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는 6백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다. 이용훈 집사는 “여러분이 오늘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의 노래를 듣고자 오신 것이 아닐까 바란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을 줄 믿는다”며 노래를 시작했다. 그가 한국 한국의 찬양에 감사와 은혜를 담아 부를 때마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앵콜이 터져 나왔다.

‘세계 정상급의 테너’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감수성과 성량도 그러했지만 사실 더 주목받은 것은 그의 간증이었다. 그가 자신의 신앙을 노래와 함께 간증한 2부 순서에서 청중들은 노래 못지 않은 은혜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테너 이용훈 집사가 기아대책과 함께 자메이카 어린이를 위해 노래하고 간증했다.

이번 음악회의 수익금은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가 후원하고 있는 자메이카의 조미선 선교사에게 전달된다. 조 선교사는 남편 곁 이선구 선교사와 딸 샘빛이와 함께 2001년부터 선교를 시작했다.故 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급성간염으로 순직한 후에도 조 선교사는 딸과 함께 자메이카에 남아 여전히 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KUMC 주최, 달리기 및 걷기 대회

불우이웃 위해 시카고 교회 함께 뛰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 백영민 목사, 회장 조규오 목사, 김광태 목사, 김옥연 감리사, 우민혁 목사, 이영태 목사

18일 오전 6시경부터 글렌뷰 갤럭시파크이 붐비기 시작했다. 시카고지역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가 주최한 “불우이웃 돕기 5K 달리기, 1마일 걷기 대회”에는 선수 3백여명,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가해 한인 동포를 향한 사랑에 뜻을 모았다. 대회 시작에 앞서 기도한 연합회 회장 조규오 목사(시온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걷고 뛰는 가운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

했다. 장기남 한인회장도 “여러분은 사랑 나눔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천사”라며 “사회가 겪는 어려움을 사랑 나눔으로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 시카고 지역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며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 동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올해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주축이되며 타 교단 성도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감보리교회, 그레이스교회, 은혜와진리교회,

네이퍼빌제일장로교회, 포도원교회, 갈멜교회, 가나안교회, 헤브론교회, 월로크릭교회, 구세군메이페어커뮤니티교회, 시카고한인제일장로교회 등 타 교단 교회 성도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목회자들도 신광해 목사(교협회장, 아가페교회), 최문선 목사(군뉴스교회), 서삼선 목사(시카고한인제일장로교회), 장호운 사관(메이페어교회) 등 타 교단 목회자들이 함께 뛰며 자리를 빛냈다.

15세 이하부터 70세 이상까지 5살 단위로 그룹이 나눠져 선수들의 등수가 매겨졌지만 전체 1등은 5킬로미터를 20분 2초만에 주파한 정하상성당의 이수일 씨가 차지했다. 별도로 등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최초로 끝인한 선수는 신광해 목사였다. 신목사는 “목회도 체력이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서 글렌뷰러너스클럽이 행사의 전체를 주관하며 봉사했고 50여 개인과 단체, 교회가 경품 협찬 등으로 협력했다.

(김준형 기자)

PCUSA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려



전국에서 모인 PCUSA 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 2백여명이 한미교회에서 비전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 전국한인교회총회와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미래를 열어가는 평신도 사역- 하나되어 행복한 내일)이 전국에서 2백여 명의 평신도가 등록한 가운데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은 시카고 지역 8개 교회로부터 120명, 타주의 30여 개 교회로부터 80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총회장 정인수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새로운 시대에

사역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의 일정동안 참석자들은 예배와 찬양, 선교 보고 등 각종 보고, 간증, 워크샵 등의 순서를 소화하며 평신도 사역의 비전을 찾아갔다. 박형은 목사(달라스빛내리교회),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 등 쟁쟁한 강사들과 함께 시카고 지역에서는 임혜환 목사(중서부 한미노회 총무), 유원하 목사(한사랑장로교회), 주용성 목사(한미장로교회) 등이 설교와 워크샵 등을 인도하며 메시지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북가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14일 세계선교침례교회(고상환 목사)에서 열렸다. 김승식 목사 설교 장면.

정기총회서 흥흥산 목사 차기회장에 선출

북가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14일 세계선교침례교회(고상환 목사)에서 열렸

북가주 남침례교협의회, “목회자여! 소명을 붙들라”

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흥흥산 목사(아가페교회)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승식 목사(교회전략가)는 이날 정기총회 설교에서 “목회자가 소명감이 있어서 시작했는데, 희미해질 때가 있다.

누가 뭐라고해도 이 일을 한다는 확신이 있는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긍지를 갖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앞에 한번 평가를 받는다. 하나님앞에 선 중간평가란 없다. 흠없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얼마전 세미나에서 가장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법은 큰

교회에 있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엔 웃고 지나갔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안타까운 사례지만, 10년이상 가정에서 목회만 하다보니가 위축되고 술한잔마시는 유혹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었다.

여러분은 힘들어도 양심에 타협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고백하며 살길 바란다. 하나님과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 타인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김승식 목사는 “요셉은 유혹이 올 때, 양심에 떴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았다.

정말 흠을 발견하려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 밖에는 찾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북가주 남침례회한인교회협의회는 북가주 지역 55개 교회가 연합되어 있다.

한해동안 총회 특별행사로 제 2회 사모들의 밤 행사, 제 8회 성가합창제, 광복절기념 배구대회, 남북가주연합 목회자 가족 수양회 등이 진행됐다.

지난회기동안 세계선교침례교회(고상환 목사), 이스트베이제일침례교회(이승희 목사), 뉴네이션선교침례교회(배훈 목사), 빌립보교회(이종철 목사), 산호세한인침례교회(최승환 목사) 담임목사가 취임예배가 있었다.

(임형진 기자)



청년사역 전도.. 눈높이 맞춰 접근해야

늘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크리스천들에게 전도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은 않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반면에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쉬운 것이 전도다. 특히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2세 사

생각없이 하는 힘들이려 전도를 위해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도서관이나 식당, 카페, 또는 학교 게시판을 이용한 초대 의 글 등에서 여러 장소와 루트를 통해 만남의 기회가 생긴다.

서 사귀다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죠. 한 마디로 함께 노는 거죠. 함께 놀 줄 모르면 어렵죠” 이렇게 따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쉽다고 한다. “전도를 하려면 욕심내

이런 고전적 멘트는 지금의 청년사역현장에서 상당히 어색하다. 당사자에게는 당혹감마저 줄 수 있다. 그는 학생들이 자주 찾아다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연히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고 한다.

▶ 소재현 목사, 가장 효율적 전도방법은 ‘관계형성 통해’

역, 청년사역에서 전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북가주에서 한인 2세 사역, 캠퍼스 현장에서 뛰고 있으며 과거 KCCC 소속으로 캠퍼스 전도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왔던 소재현 목사(베이오픈도어교회)로부터 청년대상 전도의 경험담을 들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전도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시작된다.

- ◆ 가장 효율적 전도방법은 친밀한 관계형성 통해...
- ◆ 청년들과 함께 놀며 즐긴다는

“먼저는 전도할 대상과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돼야죠. 지금까지 전단지도 뿌리면서 하는 전도활동도 많이 해봤지만, 직접 일대일의 친분 관계를 맺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만큼 결과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한두 번 만에 친해질 수 있나요? 사람과의 만남은 늘 변수가 있기 마련이죠. 여러 번 학생들과 마주치다보면 같이 건전한 스포츠나 영화, 음악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남 그 자체가 즐거우니까 서로 또 만나게 되고 또 다시 몇 번 더 만나면

지 말고 무엇보다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소 목사는 먼저 자연스러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친해지면 전도하기에 적당한 때가 찾아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에 가도록 초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라고 말했다.

- ◆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어떻게 만드나
- “안녕하세요? 시간되시나요?” “교회 안다니시는 분이죠? 교회 나오실래요?”

캠퍼스에서는 공개적으로 모집(?)도 한다. “이번에 전도할 대상인 캠퍼스에서 교실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한인 유학생들과 예배드리려고 해요. 아주 튀는 멘트로 학교 여기저기 광고하려고요. 그렇게 초대하면, 실제로 오더라구요. ‘외로운 사람들은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예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일단 이렇게 찾아온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대신 함께 즐겁게 놀자고 제안하면서 헤어지면 다음번에 분명히 또 와요. 예배드릴 수



있으며 성경공부 할 수 있는 공간만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허락된다면 못할게 없어요.” 이와 같은 방식은 한인 1.5세

유학생 외에도 한인2세, 아시아인 등 다민족권 청년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상황만 갖춰지면 인종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전도한다. “최근에 우연히 만난 중국인 형제 한 명과 가깝게 친해지게 됐는데, 나중에 교회에 꼭 데려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도라는 것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알려진 미국대형교회 목사도 항상 직접 전도하며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에 왜 자주 높은 벽을 두나요? 그냥 나가서 하면 되는 거죠.”

(임형진 기자)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 한가위 추석잔치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관장 이현아)는 9월 18일(토), 봉사회 본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가위 추석 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이정관 총영사가 참석하여 재외동포재단에서 희사하는 \$10,000의 기금이 전달하였고, 산타클라라 카운티로부터 공로패를 전달 받았으며, 봉사회의 무궁화 무용단, 평화합창단, 클라리넷 반, 청소년 리더쉽 프로그램의 사물놀이, 라인댄스반, 유아반의 공연과 점심식사 후의 율놀이, 제기차기 등의 전통 게임들로 마무리지어졌다.

이 행사를 위하여 새하늘 우리교회, 산호세 온누리교회, 북가주 자비회, 리

빙스톤 침례교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임마누엘 장로교회, 모아 움자, 참김치, 청소년 학부모 등 이음식과 경품, 그리고 교동편들을 제공하여 봉사회 추석행사를 도왔다. 이현아 관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회의 행사를 도와주어서 고맙다”며 “추석이니만큼 그 정신을 서로 북돋우며 격려하자”고 말했다.

김운길(88세)씨는 “못보던 친구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웠다”며 “편하게 잘 대접받고 가는 기분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음 봉사회의 문화행사는 11월 중순에 예정된 전통예술제이다. (임형진 기자)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한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남주주광영교회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감동 받은 것은 마음대로 운동을 하고 뛰놀 수 있는 넓은 운동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라난 동네는 주택가 옆

에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주변에 넓은 운동장이 없으니 골목에서 축구를 합니다. 신나게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치면서 욕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놀아라” 욕을 먹으며 쫓겨났던 일들이 기억 납니다. 교사들이 이민초기에 미국을 방문하며 공원과 운동장을 보면 자녀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 놀고 운동을 하면...

저는 미국에 온지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우성아, 미국에서 운동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

야” 말을 하곤 합니다. 날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머리에 생각만 하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바쁘다는 핑계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습관이 되지 않을 것일까요? 오늘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분이 있을까요? 조국 땅에서는 과거 신세계체조를 국민운동으로 바꾸고 ‘7330’으로 구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을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도 정기

적으로 운동을 하면 젊은이만큼 뇌가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뉴스위크 “운동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 뇌의 크기를 늘리고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9년 전까지만 해도 사

두뇌에 평소의 두 배나 되는 피를 공급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렇게 늘어난 뇌 중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이전에 줄어들었던 부분을 복구하기도 한다는 점입

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을 줄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비슷하지 않을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좋은 관계로 하나님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너무 좋을 줄 알면

운동과 회개의 공통점은?

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심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회개는 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돌이킬이없는 은혜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4:17) 나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용서를 회개와 용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경험합니다. 운동하면 천국의 기쁨을 느낍니다. 회개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요?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다 같이 경험하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이런 축복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천국운동을 같이 뛰어 보시지요.

양성필 칼럼



양성필 목사
베델한인교회 행정담당

카페나 식당에 가면 누가 손님인지 분명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손님입니다. 가게 주인이나 종업원은 카운터에 있거나, 커피나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손님은 그저 가만히 있다가 커피나 마시고 음식을 먹고는 치우지도 않고 갑니다. 당연히 치우는 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대접받는 것은 손님이고, 주인은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과 주인을 혼동해서는 큰일입니다. 주인은 예수님뿐이지만, 성도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나라를 받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

가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역사극은 즐겨서 보는 편입니다. 몇 달전에 선택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본적이 있습니다. 선택여왕은 왕족출신인 ‘성골’이고, 선택여왕의 반대편에 있는 미실이라는 여인은 귀족출신인 ‘진골’입니다. 진골은 왕이 될 수 없지만,

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익보다는 교회와 하나님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서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고, 지저분한 곳이 있을때, “교회 왜 이리 지저분해? 청소 누가 할거야?” 따지기부터 하는 사

람은 분명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조용히 휴지를 줍습니다. 조용히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청소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은 교회청소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왜 이리 사람이 없어?” 서슴치 않고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손님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저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섬길까를 늘 생각하고, 내 주위에, 구역과 셀모임 안에서부터 사랑을 나눕니다. 몇 달전에 딸의 헤어컷을 하러 미용실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성도님인지, 온 미용실 안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교회를 성도하고 목사님 흥을 보

어떤 성도가 교회의 주인의식

는데, 너무 민망하게 등에서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제 딸이 그때 “우리 아빠도 목사님인데”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에 반성하고 조심해야 할 뉘는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의 몫이지만,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성도가 열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므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섬기는 법입니다.

철저히 섬기기만 합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손님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줄 아십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도 누구에게나 섬김받으셔야 마땅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을 받기위해 오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사랑의 왕일뿐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께로부터 교회의 열쇠를 받은 성도들은 선한 정치기로서 철저히 섬기고 낮아져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으로교회

우리 아들은 참 이상하다. 자기 엄마 생일에 진공청소기를 선물을 하고, 자기 누나 생일 때는 사워커튼 고리를 선

생일 선물

물했다. 이 선물을 받은 아내와 딸의 반응은 비슷했다. 첫째, 왜 이런 선물을 사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둘째, 선물을 반환하고 원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아들은 자기 돈 드려 선물을 사왔지만, 전혀 그 생색이 나지 않았다. 다시 찾아오는 엄마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사야할지 아들이 고민을 한다. 아들을 옆에 앉혀 놓고, 선물은 ‘나만의 것’이라는 애착이 가는 것이

야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진공청소기나 사워커튼 고리는 가족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선물일 수 있으나, “나만의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이 되기 힘들다고 말해주었다. 개인적 의미를 갖는 선물의 개념은 성경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금 취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에게만 속한 특별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b) 하셨다. 즉 나를 부르실 때에 ‘여러분’ 하며 대중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애착있게 불러주셨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사 49:16) 하시며 자신에게만 속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 2:9) 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개인 소지품 같은 가치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킨다. 내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내가 유난히 아끼듯이, 당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 넣은 우리를 하나님은 특별히 아끼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파산법	이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협회원
-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 미주 상공인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 국제 Law Firm Coudert Brothers 근무
-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이문규 법률그룹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IRVINE 949-442-8370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	------------------------------------------------------------------------------------------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중고차 황제 김기형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임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판매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Boston Hub Dental & Implant Center 보스턴 덴탈 & 임플란트 센터

10년 임플란트 식립 경험 전문 치과와 보철 전문의가 최상의 임플란트 기술 및 보철물 제작임플란트 성공은 적절한 임플란트 식립과 치주 처치 및 보철물 제작에 달려 있습니다.

- 무통 임플란트
- 잇몸 절개 없는 임플란트
- 수면 임플란트 (IV injection)
- 드물 없이 심는 임플란트
- 방치 즉시 임플란트 및 즉시 보철 제작 (Case by Case)

오픈기념 특별할인
임플란트 \$999 (limited 보철포함)
검진 + X-Ray + 클리닉 = \$40

치과 이식 • 보철치료 • 신경치료 • 구강외과
치주치료 • TMJ (악관절염) • 스포츠의학
보톡스 (주름, 근육에 의한 시각적) • 치아교정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중영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치과 보조사,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여름학기 숙성 학생모집 (악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차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 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캐더링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1-800-530-5660 / 1-800-711-0776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스 \$1.00 (1인당)
- 유채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치 미역국 \$1.00 (1인당)
- 아미비빔밥 \$1.20 (1인당)
- 고기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식재료 도.소매

- 주말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농산물 등)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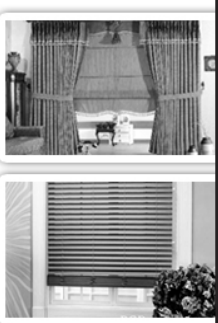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이민목회에 생명력과 부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나무목회 컨퍼런스

미국 이민 목회자들을 위한

생명나무목회 컨퍼런스 2010

맨땅에서 맨발 맨손으로 현 3만명의 교회로 부흥을 일으킨 생명나무목회 비전을 들어 보셨습니까?
 남가주교협 창립40주년을 맞이하여 한기총언론출판위원회와 남가주교회협의회가
 한국에서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되고 있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의 생명나무목회의 비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 한국에서 3,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귀한 컨퍼런스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나무 목회컨퍼런스는

- 하나, 특히 이민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 하나,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 교회의 기존 조직이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회에 생명력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 하나, 목회자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간도서 5권씩 증정함)



주강사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담임목사
 칼빈대 석좌교수
 세계성령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 일시 : 2010. 10. 25(월) ~ 27(수)

▪ 장소 : 더블트리 호텔 (전 매리오투 호텔)

www.losangelesnorwalk.doubletree.com
 (1311 Sycamore Dr, Norwalk, CA 90650 - 5번 프리웨이와 San Antonio 교차지점)
 (562) 863-5555 / (562)714-3330 (미셸 신 한인담당 매니저)

개회예배

폐회예배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남가주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신일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2010 컨퍼런스 주요일정

- 대 상 : 목회자
- 등 록 비 : \$50(교재 및 1급호텔 숙박 제공)
- 등 록기간 : 2010년 10월 3일~16일
- 등 록신청 :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대표전화 : 213-383-2345(오전10시~오후 5시)
 팩 스 : 213-383-2322(24시간 접수)
 홈페이지 : www.cnewsweek.com
 이 메 일 : christiannewsweek@hotmail.com
 주 소 : 3700 Wilshire Blvd., suite 755 Los Angeles, CA 90010

* 수용가능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주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 이광선 목사, 언론출판위원회 회장 : 이형규 장로),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 지용덕 목사), 새에덴교회(담임 : 소강석 목사)
 ▪ 주관 : 크리스천뉴스위크(발행인 : 조명환 목사) ▪ 후원 : 세계기독교언론협회(회장 : 조명환 목사), 남가주목사협의회(회장 : 이정현 목사), OC교회 협의회(회장 : 박용덕 목사)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9월 27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까지 아이토크비비 하나로!

집에서는 아이토크비비!
밖에서는 아이토크글로벌!
한국가족들은 마이 코리아 넘버!

단, 9월 16일 ~ 9월 30일 가입자에 한함

무제한 통화의 자유를 누리세요~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9.99/월, Tax포함
(*첫 3개월간, 이후 \$24.99/월)

- 로컬, 미국 · 캐나다 장거리,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30일 환불보장

한국통신위원회 (www.kctc.go.kr) 인증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Verizon AT&T
가정용전화
완전대체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한인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상담문의: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9시)

비싼 집전화 기본료 이제 안녕~

Residential Economic Plan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전화번호 1개+한국 전화번호 1개 제공!
- 수신 무제한 무료!
- 초저가 요금으로 로컬, 장거리, 국제전화 이용가능!
미국, 캐나다 2센트/분, 한국 유선전화 2.6센트/분

지금 가입하시면,

- ✓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가입문의 **1-800-872-2902** (고객지원) 1-800-875-8318 (고객지원)

iTalkBB www.Korea.iTalkBB.com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단말 및 서비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이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유선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발신할 때는 해당국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글로벌 플랜의 글로벌 통화는 월간 기본요금 27달러를 초과할 경우 27달러 초과 금액에 따라 27달러씩 추가됩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일시정지는 경우 \$69.99의 확인금 및 프로세스 기간 동안 발신 통신비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만 해당되며, 다른 플랜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세스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십시오. 고객지원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언론편하고, 간편한 온라인 코퍼릿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북미에서 단일 딜러로 가장 큰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에쿠스 출시를 기념하여 기존 제네시스 리스하신 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제네시스 리스 리턴시 내셔야 하는 **DISPOSITION FEE(\$400)** 을 면제해 드리고, 재 리스시 **한달 할부금을 면제해** 드립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9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쏘나타

\$199/3YR 12K T.D.O \$2,399
O.A.C & PLUS TAX, LOYALTY INCENTIVE
STK 132410



2011 신형 제네시스

\$399/3YR 2K T.D.O \$2,999
O.A.C & PLUS TAX, LOYALTY OR COMP. INCENTIVE / STK 11560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259/3YR 12K T.D.O \$2,199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STK 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159/2YR 12K T.D.O \$1,999
O.A.C & PLUS TAX, INCENTIVE
STK 093904



9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 ▶ 2007 BMW 328XI BLACK STK PP31167
- ▶ 2006 CHEVY AVALANCHE BLUE STK P084373A
- ▶ 2010 CHEVY IMPALA SILVER STK P107055
- ▶ 2009 CHEVY MALIBU BLUE STK P192398
- ▶ 2009 HONDA ACCORD WHITE STK P021316A
- ▶ 2008 HYUNDAI ENTOURAGE GOLD STK P051414
- ▶ 2010 HYUNDAI SONATA BEIGE STK P581165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STK P057661
- ▶ 2009 TOYOTA TACOMA WHITE STK P640770



2009 HYUNDAI ELANTRA BLUE STK P755456 **\$14,9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 P018925 **\$28,900**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STK P253216 **\$17,995**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장



저스틴 길



제메인 존슨



지니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